

옛 선비들의 멋과 풍류를 엿보다

“눈은 도를 사색하느라 감았고 / 머리는 세속을 싫어해 숙였도다 / 스스로 장자의 학문을 체득하니 / 영광과 괴로움이 하나로 여겨지네.”

18일 오후 1시 담양군 남면 지곡리 식영정(息影亭) 주변으로 알록달록한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망건을 두르고 갖은 선비들이 모여들었다. 자신을 임억령(1496~1568년·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소개한 한 선비가 나와 “내 사위 김성원이 나를 위해 지은 식영정에 담긴 뜻을 아느냐?”고 물었고, 식영정에 모인 선비들이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 선비가 “식영은 그림자도 쉬어가는 곳이라는 의미이며, 나와 내 그림자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며 명쾌한 답변을 내었다.

이날 풍경은 TV 사극 촬영이 아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식영정, 서하당, 환벽당 일대에서 옛 선비들이 시를 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 중 하나였다.

행사의 모든 시나리오는 조선 중기 학자 김성원의 ‘서하당유고’에 그려진 ‘성산계류탁월도’에서 시작됐다. ‘성산계류탁월도’는 16세기 혼돈의 정치상황 속에서 이재를 찾는 대신 학문과 자기수양에 힘썼던 조선조 선비들이 환벽당과 식영정 사이의 성산계류에 모여 더위를 씻으며 시화를 즐기는 풍경을 담은 그림이다.

광주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문화관광합동대와 놀이패 ‘신명’이 재현행사에 나섰고, 송강 정철의 후손인 정부선 응, 조선대 한문학과 강사인 임준성 박사, 방송작가이자 소설가인 김인정씨 등이 참여해 조선 중기로 시간 여행을 떠났다.



옛 선비들의 여름나기 모습을 연출한 ‘성산계류탁월도’ 재현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한국화가 허달용씨가 그린 매화 그림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식영정 일대서 ‘성산계류탁월도’ 재현 행사

문화탐험대·놀이패 ‘신명’ 등 참여, 조선 중기로 시간여행

이날 행사는 보존 위주였던 역사적 ‘장소’에서 선조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사건’을 곁들여 새로운 관광 자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그림 속 옛 모습을 음악과 공연, 이야기가 있는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 형태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식영정에서 매화차를 마시며 토론을 벌이던 선비들 뒤로는 한국화가 허달용씨가 매화도를 그려 운치를 더했고, 인근 서하당에서는 거문고 연주가 이어졌다.

또 환벽당과 식영정 사이의 계곡에 모여 ‘성산계류탁월도’ 속 선비들처럼 발을 씻으며 더위를 쫓았던 옛 모습을 재현했다. 이곳은 정철이 먹을 감았다는 곳이다. 발을 씻는 것은 낙향한 울분과 한을 씻어내고 무더위 속에서 학문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흥겨운 옛 풍류는 환벽당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행사를 재현한 선비 일행과 관람객 등 50여 명이 환벽당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던 악사와 명창이 정철의 청산별곡을

들려줬다.

환벽당 앞에 심어진 벽오동 나무를 보며 선비들은 시를 주고 받으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또 관람객들이 명창과 함께 시조창을 배우며 가사 문화의 진수를 맛봤다.

광주문화재단 박선정 사무처장은 “무등산 누정문화는 조선 문화의 꽃이다”면서 “이들 공간에서 다양한 재현공연을 정례화하고, 소재원 등 무등산 일대로 장소를 확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도심 사찰서 가을밤 클래식

주부명예기자단 ‘행복 나눔 콘서트’ 내일 무각사 야외무대

가을색이 짙어가는 도심 속의 사찰에서 클래식, 통기타 선율이 빠져 보세요.

광주시가 운영하는 주부명예기자단은 20일 오후 7시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주지 청학스님) 문화관 야외무대에서 ‘행복 나눔 콘서트’를 연다.

주부명예기자단과 시민영화카페 회원,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성악, 전자 바이올린, 기타 등 클래식 음악부터 통기타 그룹 연주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예술법인 ‘양상물 아르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씨가 ‘베토벤 바이러스’ ‘비바 Viva’ ‘익스플로시브 Explosive’ 등 크로스 오버곡들을 들려 준다. 또 베이스 황성철씨가 ‘백학’, 소프라노 유영민·김혜미 씨가 각각 ‘Memory’와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등을 선사한다.

특히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음악원 출신 기타리스트 서만재씨와 정선식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가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로 화음을 맞춘다. 포크트리오 ‘소리섬 사람들’은 ‘나는 홀로 있어도’ 등을 부른다.

1부 공연행사 후에는 주부명예기자단이 직접 준비한 파전 등 먹을거리가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이 이어질 계획이다. 문의 062-613-215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만재>

<정선식>

디자이너 박재원 장애아동기 자선패션쇼 성황

17일 서울 반얀트리 호텔... 수익금 전액 기부

패션디자이너 박재원(70)씨와 서울아동복지후원회(SCWC)가 주최한 장애아동 돕기 자선 패션쇼(사진)가 17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모노톤 필터’란 테마로 열린 패션쇼에서 박씨는 섬세한 패턴과 플리츠를 믹스시켜 도시 속의 여심을 잘 살린 2011~2012년 가을·겨울 의상을 선보였다.

이번 패션쇼에는 마리아 자이트 독일 대사 부인 등 7개 나라 대사 부인과 텔런트 이보희씨와 배우 윤, 왕빛나 등이 모델로 참여해 뜻을 모았다.

박씨는 한국패션문화협회 이사로 1995년 첫 광주비엔날레에서 패션패션 스타일 위원장을 맡았으며 패션잡지 ELLE가 수여하는 ‘제1회 패션인상’과 1996년 대한민국 국민문화포상을 받았다.

이날 패션쇼 입장권 판매와 현장 모금을 통한 수익금은 전액 서울아동복지후원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아동복지후원회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던 루시 브릭스 여사와 대사관 직원 부인들이 전정고아와 불나씨 등이 모델로 참여해 뜻을 모았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책잔치 ‘신통방통 문화, 별별 이야기’ 22일 서구 신암공원

책과 함께 신명나게 놀 수 있는 ‘제3회 빛고을 어린이 책잔치’가 22일 광주 서구 풍암동 신암공원에서 ‘신통방통 문화, 별별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우리동네 문화예술축제를 목표로 열리는 이번 책잔치는 책을 주제로 한 행사지만 다양한 전시·공연 등이

함께하는 모든 세대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 문화행사 형태로 진행된다.

오후 1시 30분 문화예술공공체 ‘터’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개막식이 열리고 어린이 밴드 ‘꼬꼬마밴드’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2~6시 열리는 전시마당에서

는 바깥도서관 ‘그림책, 예술과 만나다’와 작은도서관 문화예술학교 ‘신통방통 문화, 별별 이야기’전, 주제책 전시 ‘달라도 친구-제일조선인학교 아이들과 만나요’, 그림책 원화전시, 빅아트북 전시회가 진행된다.

극단 토박이가 주관하는 신나는 놀이마당 ‘동화나라에 왔어요’ 놀이마

당이 열리고, 문화마당으로 ‘천사들의 행진’의 작가 강무흥씨와 그림작가 최영혜씨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 자리를 갖고 지윤, 수빈이 아바 정연교씨가 진행하는 ‘책 읽어주는 텐트’ 행사도 준비됐다.

오후 2시 30분~4시30분에 진행되는 체험마당에서는 평화의 팝업카드 만들기, 도서관 3종 경기(그림책·우리말 퍼즐, 도서관 3행시), 그림책 놀이, 인형만들기 등이 실시된다. 문의 062-652-1279. /김대성기자 bigkim@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사람들

21일 전남대서 다큐 ‘짬 다큐 강정’ 상영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싸우는 제주 강정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짬 다큐 강정’ 상영회가 21일 오후 7시 전남대 흥분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상영회는 광주인권영화제와 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짬 다큐 강정’을 제주지역 공동체상영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행사다.

‘짬 다큐 강정’은 제주출신 영화인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하던 중 구속되자 독립영화인들이 그의 뜻을

지지하기 위해 만든 작품으로 재능기부와 후원 등 사회적 제작 방식으로 완성됐다. 다큐는 총 90분간 제주 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덟 개의 시선으로 고발하고 있다.

‘짬 다큐 강정’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1년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정마을 주민 초청 이야기 들기와 사진전 등 후원모금행사도 결여진다. 영화 관람은 무료다. 문의 062-529-7576. /김대성기자 bigkim@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홍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주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프링매시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